담양장학회, 장애인 장학금 신설

임시이사회, 수혜 범위 확대 의결… 내년부터 기금 조성

(재)담양장학회가 제6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장애인 장학금 운용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설한 장애인 장학금은 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해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담양장학회는 매년 담양, 미래천년, 임홍균등불, 허영호, 두봉, 최두호 장학금 등 모두 6종의 개별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 이사장인 이병노 군수는 21일 "앞으로 담양장학회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버팀목이 되도록 더욱 건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함평,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우수상'

환경부 주관 수상 영예

함평군이 환경부 주관 '2021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은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수인구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심의한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기대응능력 ▲정수장관리 및 수질기준 준수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 등 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4그룹(급수인구 5만명 미만) 46개 지자체 중 최종 2위를 달성해 환경부장관이 수여하는 인증패와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22년 물 산업 미래비전 포럼'에서 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흥 '청정공정 확산사업' 성과 보고회

13개 기업 시설 청정시설 개선

장흥군은 최근 CO2 절감, 에너지 및 폐기물 절감,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청정공정 확산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과 보고회는 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사업의 결실을 맺은 8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63개 기업이 시설개선을 통한 청정공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비 2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도모했다.

청정공정확산사업은 전문 수행기관에서 기업별 중점개선 공정을 발굴하여 자체 문제점 및 개선안을 공유하고, 청정공정기술 적용 방안을 도출하여 개선안 실행을 위한 설비 등의 투자를 통해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장흥군에서는 2022년도에 13개의 기업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고 실효성 및 효과성을 진단하여 최종 8개 기업에 대해 군비 6000만원을 포함 국비, 자부담 등 총 1억 1700만원으로 원가절감 효과 등 청정시설로 개선했다.

선정기업 중 바이오식품산단 소재 ㈜서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성과기업 중 최고의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쌀값 하락 피해 농가·농협 지원 나선다

농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 추가 지급·농협 손실액 5억 지원

화순군이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와 농협의 손실액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쌀값 하락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농협에 대해서도 손실액 5억원을 지원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쌀 값은 쌀 소비량 감소와 풍작으로 인한 공급량 과잉이 겹쳐 전년 대비 25% 하락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협이 벼 재고를 구매했지만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협도 손실액이 15억원이 넘어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농협이 입은 손실이 농업인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액의 33%에 해당하는 5억원을 농협측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쌀 생산기반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원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 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화순군은 매년 20억원(도비 40%, 군비 60%) 이상 지급해 왔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농협과 농가에 매년 쌀 포장재, 택배비, 공동선별비 지원 등 8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꾀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표면적으로는 농협에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내년 미래 발전 위한 '대도약 시기' 삼는다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주요사업 319건 논의

장성군이 변화된 장성을 만드는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0일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논의된 주요사업은 공약 48건과 역점현안 63건, 신규현안 52건, 일반현안 156건 총 319건이다.

군은 내년부터 국가 신성장 산업 추진에 주력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공동 추진 중인 '미래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안정적 설립을 추진하고, 삼계면 상도리 일대 국립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황룡~광주 임곡간 지방도 개선 등 SOC(에스오씨,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 ▲농촌생활 기반 조성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1000만 장성관광 시대'를 여는 관광자원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5대 맛 거리 조성 ▲황룡강~필암서원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 ▲장성호 상류 수변권역 개발 ▲수양제 주변 레저공원 조성 등 명품 관광 콘텐츠 구축을 통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성만의 매력을 갖춰나간다.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건립 ▲가족회관 건립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장성사랑상품권은 350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경영 개선과 점포임차료 지원,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23년은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도약의 시기"라 강조하면서 "군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이 주인인 행복한 장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전남도 규제개혁 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영광군은 지난 20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2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남도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 ▲규제개혁 제도 운영 ▲규제개혁 대표 성과사례 ▲규제개혁 성과(경진대회) 등 6개 분야 11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제개혁 우수 시군으로 9개 시군을 선정했다.

영광군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분기별 중점테마(산업·소상공인·신산업 등) 규제와 군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총 95건의 중앙법령 개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중 17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각 평가지표별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과 상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나주시, 미혼 남녀 만남 4커플 매칭 성공 '눈길'

나주시가 미혼 남녀 직장인 만남을 주선해 4커플 매칭에 성공했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빛가람동 듀플렉스호텔 중연회장에서 커플매칭 행사인 '솔로엔딩, 우리 지금 만나'(이하 솔로엔딩)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솔로엔딩 행사는 인구감소 원인이 되는 2030세대 비혼·독신주의를 개선하고 청춘 남녀의 건강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 달 사전 참가자 모집을 통해 선정된 28~36세 미혼 남녀 직장인 34명이 참여했다.

잠들어있던 연애 세포를 깨울 인연을 찾아 나선 남녀 참가자들은 시청, 각급 학교, 관공서·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커플 이벤트 전문 MC의 진행을 통해 '1:1대화', '레크리에이션', '조별 포토 미션',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앙암바위에 서린 아랑사와 아비사의 순애보, 완사천 우물가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 오씨의 버들잎 스토리가 있는 사랑의 도시 나주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고 가정의 둥지를 틀 수 있길 기대한다"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